

2018년 10월 7일
연중 27주일(나해)

□ 교구설립 1974년 6월 1일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하늘숨결

www.skhbusan.org

Busan Diocese, Anglican Church of Korea (Daehan Sungkonghoe)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9번길 5-1 / •전화: 051)463-5742 / •팩스: 051)463-5957

공동주보 제 149호

• 2018 교구표어

복음으로 새롭게,
선교로 다함께!

여자와 어린이

약한 자들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여자와 아이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지적하십니다. 또한, 자신에게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언행은 기실 당시에 억압받고 고난 받는 대표적 계층으로 여자와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돌보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사회 곳곳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상대적으로 권력과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상황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교회 안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은근한 차별과 주요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흐름은 어느 덧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래 교회의 희망인 아이들 청소년 문제에 있어 공허한 구호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와 반대로 힘 있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어려울 것 없는 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 약한 자들, 억압 받는 자들 그리고 힘없는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없는 이들처럼 대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이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조연성 야곱 사제(푸드뱅크)

(10월 14일, 연중 28주일 목상글 기고자- 조명숙부제/ 마감 10월 7일)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 ○ 교회

부산교구는
'교회다움'·'교회다움'을
바라봅니다.

각 교회 안내란

✧ **개회예식**

1. **입당성가** : ---장 / 다함께
2. **정심기도** (예식서 6쪽) / 집례자
3. **죄의고백** (예식서 6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니다.
4.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성가 89장)

✧ **말씀의 전례**

5. **본기도** (예식서 13쪽) / 집례자
(집례자)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함께) 아멘.

6. **제1독서: 욥기 1:1, 2:1-10 / 김---**

7. **성서: 시편 26 / 다함께**



- 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소서.
○ 깨끗하게 살며
주님만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 주여, 나를 살살이 캐어보시고 알아보소서.
○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보소서.
-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쳐다보면
○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았습니다.
- 주여, 손을 씻어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이고
○ 당신의 제단을 두루 돌며 노래합니다.
- 주여, 나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집이 좋습니다.
○ 당신의 영광이 깃든 그곳이 좋습니다.
- 든든한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리며
○ 예배하는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령과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8. **제2독서: 히브 1:1-4, 2:5-12 / 최---**

9. **찬가성가** : ---장 / 다함께

10. **복음환호송** (예식서 14쪽) / 집례자
(집례자 특정문)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다함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11. **복음** : 마르 10:2-16 / 집례자
12. **설교** / 집례자
13.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예식서 16쪽)
14.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김---**

✧ **성찬의 전례**

15. **평화의 인사** (예식서 22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6. **광고** / 신자회장
17. **봉헌성가: ---장 / 봉헌봉사: 석---**
(집례자 봉헌준비기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다함께) 아멘.

18. **성찬기도 - 1양식** (예식서 23쪽) / 다함께
(감사서문 특송)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 하시나이다.

19. **거룩하시다 - A곡** (예식서 25쪽)
20. **주의 기도** (예식서 28쪽) / 다함께
21. **성체나눔** (예식서 29쪽) / 다함께
22. **하느님의 어린양 - A곡** (예식서 29쪽)
23. **영성체와 영성체성가** : ---장 / 다함께
24. **영성체 후 기도** / 다함께

(다함께) 인자하신 성부여, 비오니, 천상의 양식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파송예식**

25. **축복기도** (예식서 32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다함께) 아멘.
26. **파송과 파송성가** : ---장 / 다함께

■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 포항성당 복구를 위한 기도와 봉헌운동을 위하여
- 새로 선출된 교회위원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의 은혜 가득하길
- 거제교회가 성령 안의 새 생활 세미나를 통해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 영주교회 수요 관상기도모임이 영주교회의 영적 전통으로 세워지기를

교회 기도제목 추가

2.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가 이 땅에 온전히 이행되기를
- 창조질서 회복과 지구생명 회복과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3.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 정요셉 사제, 이리처드 사제, 박하임(성직지망자)의 치유를 위하여

교회 기도제목 추가

4.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

교회 기도제목 추가

■ 주간 기도 안내

각 교회 안내란



■ 포항 성 안드레아 성당 복구를 위한 기도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교구를 더욱 주님의 몸 된
교회답게 세워주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이 연약하오나
하느님의 능력은 크시오니,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 성 안드레아 성당이
하느님의 뜻 가운데 복구되고
교회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성당 복구를 위하여
온 교회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드리며 봉헌하오니,
주님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되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축일에

■ 주간 축일과 전례독서

날자	전례색	축일 및 기념일	감사성찬례 전례독서
10. 8	녹색		갈라 1:6-12 / 시편 111:1-6 / 루가 10:25-37
10. 9	홍색	데니스(파리의 주교, 순교자, 250년경)	갈라 1:13-24 / 시편 139:1-10 / 루가 10:38-42
10. 10	녹색	대한성공회 최초 의료 선교사 남득시(랜디스), 와일스(1890년)	갈라 2:1-2, 7-14 / 시편 117 / 루가 11:1-4
10. 11	녹색		갈라 3:1-5 / 시편 89:1-4 / 루가 11:5-13
10. 12	백색	월프리트(주교, 선교사, 709년)	갈라 3:7-14 / 시편 111:4-10 / 루가 11:14-26
10. 13	백색	에드워드(영국왕, 고백자, 1066년)	갈라 3:22-29 / 시편 105:1-7 / 루가 11:27-28

